**FA 6명 MLB 사무국으로부터 신분조회 요청**

2016. 11. 18(금)

KBO(총재 구본능)는 어제(17일) 미국 프로야구(MLB) 사무국으로부터 김광현, 양현종, 우규민, 차우찬, 최형우, 황재균 등 6명에 대한 신분조회를 요청 받고, 오늘(18일) 해당 선수들이 FA 신분이며 해외 구단을 포함한 모든 구단과 계약 체결이 가능한 신분임을 통보하였다. 끝.